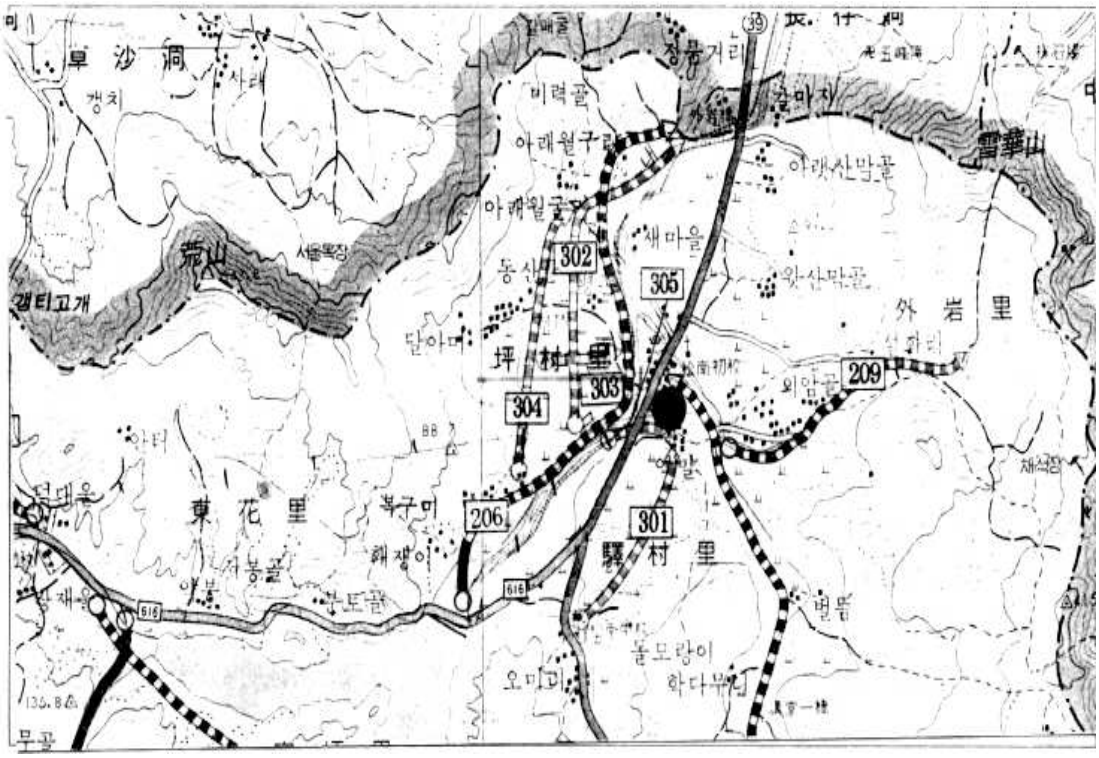
평촌리·坪村里

< 구연자 : 아산시 송악면 평촌 1리 안종복 氏 (71세)
아산시 송악면 평촌 2리 유철준 氏 (87세) >

평촌리는 송악면의 한 마을로서 들 가운데 있으므로 평촌이라 하였으며 다라미,복구미, 홰쟁이, 월구리로 구분 되었으며, 평촌1리를 '다라미' 라 부르는데, 마을 뒷산인 월라산이 바위로 이루어져 바위가 많다하여 다암이라는 명칭이 변하여 다라미로 불리게 되었으며, 일제시대에는 월라리라 불리어 달의 찬란함을 뜻한다. 평촌2리는 홰쟁이, 또는 복구미라 부르는데, 홰쟁이마을의 유래는 마을 어귀에 옛날 큰 홰나무가 있었다하여 불리게 되었으며, 복구미 마을의 유래는 마을 앞에 거북바위가 있어 복구형이라 하여 불려지게 되었다. 월구리 마을은 원래 1리와 같은 마을이었으나 얼마전 분구가 되었다. 평촌 3리는 월구리라 불리우는데 월구리 마을은 다라미 동북쪽에 위치하며 지형이 반월형이라하여 불리게 되어진 명칭이다. 평촌리의 인구수는 남자 215명, 여자 200명으로 총 415명이 살고 있으며 세대수는 총 140호에 이른다. 주로 농업을 종사하고 있으며, 본래 온양군 남하면의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회화리, 복구리, 월구리, 월라리를 병합하여 평촌리라 하여 송악면에 편입되었다.

< 평촌리 위치도 >



⊠ 다라미, 복구미, 홰쟁이, 월구리 마을

다라미는 평촌리 1리의 마을로서 인조 반정시 난을 피하기 위하여 안선교랑공(安宣敎郞公)이라는 분이 낙향하여 마을을 형성하고 뒷산 상봉에 큰 암석이 달이 둥글게 뜨는 형상과 흡사하다하여 다라미라 칭하게 되었다는 유래와 바위가 많아 다암이라 불리게 된 것이 변하여 다라미라 하였다는 유래도 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는 달의 찬란함을 뜻하는 월라리라 하였다고 한다.

평촌리 2리는 송악면의 한부락으로서 복구미, 홰쟁이, 아랫말이라는 세마을로 나뉘는데 복구미에 호구수가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다. 복구미라 불리게 된 유래는 옛날 마을 입구에

거북바위가 있어 복구형이라하여 복구미라 하였는데 매년 칠월칠석에는 이곳에서 기름냄새를 피우며 제를 올리곤 했는데 길이 새로 포장되면서 바위는 묻혀 없어지고 말았다. 홰쟁이는 저수지 방죽 밑에 있는 마을로 옛날 마을 앞에 큰 홰나무가 있었다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그러나 흔히들 주민들은 이곳을 해쟁이라고 부른다. 아랫말은 복구미 좌측에 위치하는데 마을의 아래에 있다하여 불리게 되었다.

월구리 마을은 평촌3리로 마을의 지형이 반월형이라하여 월구리라 불리게되었으며, 다라미 마을의 동북쪽에 위치한다. 본래 다라미와 같은 마을이었으나 몇년전 분구가 되었다. 마을에는 용담사라는 절이 있으며, 그곳에 국보로 지정된 석조약사여래입상이 있다.

十 석조약사여래입상

석조약사여래입상은 1971년 7월 17일에 보물 제 536호로 송악면 평촌리 산 2-4번지 있고,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평촌리에 있는 거구의 석불입상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장륙불상(1장 6척)이다. 상체가 짧고 하체가 긴 다소 불균형스러운 불상이지만 얼굴이나 옷주름의 뛰어나 조각솜씨 때문에 우수한 불상으로 돋보이고 있다. 갸름하고 단아한 얼굴, 맵시 있는 이·목·구·비, 잔잔한 미소등은 고려시대의 독특한 불상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사의 체구가 직사각형이면서 평판적이지만 손이나 팔, 어깨와 다리를 서투르게 표현하지 않은 점이나 옷주름이 유려한 솜씨등으로 당시의 석불상으로는 드물게 우수한 모습을 표현한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선이 구불거리는가 하면 기하학적인 좌우대칭성을 잘 지키고 있고 힘없이 흐늘어진 선인가 하면 상당히 유려하고 섬세한 필선을 과시하고 있으며, 혼란된 선인가 하면 무릎 등 동심원의 강조점을 표현한 옷주름선의 특징있는 표현은 얼굴의 단아한 형태미와 함께 고려시대 석불상을 대표하는 우수한 작품임을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더구나 두손을 가슴 앞에 모아 약합을 받쳐들고 있는 수인은 중생들이 앓고 있는 심신의 온갖 병마를 없애주는 자비로운 의왕인 약사여래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 조사당시 평촌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 치

다라미 마을은 위도 36-44-00, 경도 127-00-00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송악의 면 소재지인 역말의 맞은편에 1km지점에 위치한다. 마을 뒤로 월라산이 웅장하게 감싸고 있으며 마을을 바라보는 우측으로는 같은 마을이었던 평촌 3리인 월구리가 위치다.

복구미, 홰쟁이 마을은 위도 36-43-20, 경도 127-00-00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면 소재지에서 반대방향인 다리를 건너 좌측 송악저수지 방향으로 포장길을 따라 1㎞정도 가면 평촌 2리가 나온다. 다라미와는 공동묘지를 경계로 나뉘며 마을 뒷산을 성제라 하는데 산 밑으로 제일 큰 마을인 복구미와 우측으로 홰쟁이, 좌측으로 아랫말이 위치한다.

월구리 마을은 위도 36-44-20, 경도 127-00-30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역말에 서 다라미쪽으로 들어오다보면 두갈래로 갈라지는데 다라미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우측길로 들어가면 월구리 마을이 나온다.

2) 현 황

다라미는 남자 97명, 여자 101명으로 총 198명이 살고 있으며 세대수는 총 50호 에 이른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며, 복구미와 홰쟁이마을의 인구수는 남자 67명, 여자 52명으로 총 119명에 이르며 52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데 대부분 복구미에 밀집되어 있으며 홰쟁이는 13호밖에 안된다. 주민 모두 농업을 위주로 살아가고 있으며, 일부 포도재배와 양돈, 사슴 사육을 하고 있다.

월구리에 사는 인구는 남자가 51명, 여자가 47명으로 총 98명이며,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인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남	여
다라미 마을	198명	97	101
복구미. 홰쟁이마을	119명	67	52
월구리 마을	98명	51	47

- 생 업

구 분 마을명	계	농 업	기타 서어비스업
다라미 마을	100%	86%	14%
복구미. 홰쟁이마을	100%	100%	-
월구리 마을	100%	100%	-

다라미 마을의 경지면적은 논 39.5ha, 밭 11ha로 논 면적이 다른 마을에 비해 넓은편이다. 경지면적이 넓은 만큼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도 많다.

북구미, 회쟁이 마을의 농경지로는 논이 17.2ha, 밭이 14ha이다. 농업에 사용되는 농기계는 경운기가 가장 많고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이 복구미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월구리 마을의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건조기등을 보유하고 있다. 농경지 현황은 가구수가 다른마을에 비해 적은편이기 때문에 논 21ha, 밭 6.2ha밖에 안된다. 문화 시설로는 다라미마을, 복구미마을, 월구리마을 모두 마을회관 1개소가 있으며, 다른 문화시설은 없다. 현재 다라미 마을 위쪽으로 대학교가 지어지고 있는데 한창 공사중에 있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밭	논
다라미 마을	50.5ha	11ha	39.5ha
복구미.홰쟁이마을	31.2ha	14ha	17.2ha
월구리 마을	27.2ha	6.2ha	21ha

- 문화시설

구 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다라미 마을	1개소	1개소	-
복구미, 홰쟁이 마을	1개소	1개소	-
월구리 마을	1개소	1개소	-

다라미 마을의 특성은 안씨들의 집성촌으로 50호중 22호인 44%가 안씨들이다. 연령분포를 보면 60대가 가장 많으며, 젊은층은 대부분 외지로 나가 살고 있다. 복구미와 홰쟁이마을은 성씨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데 현황을 보면 김씨 25%호, 성씨 8%, 전씨 8%, 기타 59%로 김씨가 가장 많지만, 마을의 원거인은 아니다. 연령층은 다른 마을과 비슷한 현상으로 50대와 60대가 가장 많고, 30대, 40대가 적게 분포한다.

월구리 마을의 성씨는 이씨와 정씨가 각각 18%로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다음으로 백씨, 김씨 순이다. 연령별 분포로는 60대가 가장 많으며, 젊은층은 거주지는 이마을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외지에 나가서 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을은 고령층뿐이다.

- 성씨별 분포

구 분 마을명	계	안씨	김씨	성씨	전씨	백씨	정씨	이씨	기타
다라미	50호	22호	-	-	-	-	-	-	28호
복구미.홰쟁이	52호	-	13호	4호	4호	-	-	-	31호
월구리	38호	3호	5호	-	-	6호	7호	7호	10호

- 최고령자

다라미 마을에서 최고령자는 임씨 할머니로 조사되었는데, 본인도 자신의 이름을 모르고 호적에 조차 임씨로 적혀 있다고 한다. 올해 94세의 고령이지만, 활동을 하실 정도로 건강하신 편이며, 이 마을에는 유난히 노인 할머니들이 장수를 하고 계시다. 복구미와 홰쟁이 마을의 최고령자는 아랫말에 사시는 유 철준 할아버지로 올해 87세이시며, 건강하신편이며, 월구리 마을의 최고령자는 김 정걸 할아버지로 올해 96세이시며, 활동이 불편하시다.

3) 자연 경관

다라미 마을 앞으로는 넓게 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을 뒤쪽은 바위로 만들어진 월라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고, 한번쯤 올라가보고 싶을 정도로 경관도 매우 좋다. 마을 길 옆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어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지고 있고, 들판쪽으로 300여년정도 된 느티나무가 서있다. 잘 지어진 가옥들과 자연이 어울어져 마을에 들어오면 깨끗함을 느끼게 한다.

복구미,홰쟁이 마을 뒤쪽으로는 성제라 부르는 큰산이 있고, 산 중간정도에 큰 바위가 있

는데 거북이 형상으로 생겨 거북바위라 부르고 있으며, 해발 400m정도 된다. 마을 앞으로는 몇 년전만해도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갈수 있도록 만든 큰 냇가가 있었는데 현재는 공사를하여 작은 수로로 만들어 농업용수로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마을에는 산이 둘러싸여 나무들이 곳곳에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 전형적인 시골 풍경으로 마을 앞에는 넓다란 논들이 있고, 근방에서 가장 높은 광덕산을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홰쟁이 우측으로는 송악저수지가 있고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월구리 마을 입구에는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잘 가꾸어진 느티나무가 있으며, 그곳에 휴식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뒷산은 월라산이 감싸고 있고, 좌측 안쪽으로는 용담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으며, 그곳에는 국보로 지정된 석조 약사여래 입상이 오랜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마을 앞으로는 송악저수지에서 흘러가는 큰 천이 있고, 영엄하다는 설화산을 마주하고 있다.

4) 변천과정

평촌리는 온양군 남하면의 지역으로서 들 가운데 있으므로 평촌이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회화리, 복구리, 월구리, 월라리를 병합하여 아산군 송악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인조 반정시 난을 피하기 위하여 안선교랑공(안선교랑공)이라는 분이 낙향하면서 마을을 형성하게 되면서부터 안씨들의 집성촌이 되어져 대대로 살아오고 있으며, 50호 중에서 안씨 성을 가진 가구가 22호에 이른다. 현재 안씨가 13대째 살고 있으니 마을의 역사는 대략 400년 전에 형성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마을가구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때는 해방후부터였으나 지금은 젊은이들은 다 빠져나가고 노인들만이 있을 뿐이다.

복구미, 홰쟁이 마을에 처음 터를 잡고 산성씨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성씨들을 보면 윤씨, 유씨, 곽씨로 유씨와 곽씨는 4대째 살고 있으며, 윤씨는 오래전 모두 떠나고 없어 어느 누가 먼저 들어와 살았는지는 알수가 없다. 그러나 곽씨보다는 유씨가 더 먼저 들어와 살았다고 하니 마을의 형성년대는 대략 120년은 훨씬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모여살고 있는 가구수는 일제시대때만 해도 15가구밖에 안되었지만 해방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월구리 마을의 호수는 38호이며 마을에 맨처음 터를 잡은 성씨는 백씨와 조씨이다. 현재 백씨들이 5대째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150년전에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진다.

6) 지 명

十다라미 마을

·다라미 : 월라산 밑에 있는 마을. 달의 찬란함을 뜻한다.

·월라산 : 다라미 뒤쪽으로 있는 산

·산제당 : 월라산 밑에 마을의 평안을 기리기 위해 제를 올리는 곳

·갈매굴 : 동산굴 북쪽에 있는 송악저수지 수로의 세 번째 굴.

· 군수 이응우 청덕비 : 평촌에 있는 군수 이 응우의 청덕비

十 복구미, 홰쟁이 마을

ㅗ복구미 : 마을앞에 바위가 있었는데 마치 복구형처럼 생겼다 해서 복구미라 불리게 되었음.

·홰쟁이 : 복구미 남쪽에 있는 마을로 큰 홰나무 정자가 있어 홰쟁이라 함.

·복구굴 : 복구미에 있는 송악저수지 수로의 첫째 굴.

ㅗ거북바위 : 거북바위에서 칠월칠석마다 마을의 풍년과 좋은일만 있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냈으나 지금은 바위가 긴 포장으로 인해 파묻혀 버렸음.

ㅗ까치골 : 까치가 많이 서식해 붙여진 이름이다.

ㅗ성황댕이 : 공동묘지 옆으로 예전에 성황당이 있어 개인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는 했으나 지금은 없어져 밭으로 이용되고 있음.

ㅗ도둑골 : 성제골 계곡에 있는 골짜기로 낮에도 어두우며, 옛날 이곳에 도둑들이 모여 살

았다는 이야기가 있음.

ㄴ성제골 : 마을의 뒷산.

ㄴ수멍통 : 마을 앞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작은 수로.

ㄴ열녀문 : 복구미에 있는 열녀의 정문.

十 월구리 마을

ㄴ월구리 : 지형이 반월형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ㄴ동산굴 : 월굴리에 있는 송악저수지의 수로의 두 번째 굴.

ㄴ미륵골 : 역사 깊은 절이다. 초라하며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스님 또한 평범한 민간인들과 비슷한 모습이며, 절이라고 하지만 허스름한 법당이 있을 뿐이다. 원래는 미륵사라 부르다가 용담사로 개칭하게 되었음.

ㄴ석조약사여래입상 :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상, 상체가 짧고 하체가 긴 다소 불균형스러운 불상이지만 뛰어난 조각상 이다. 신라 애장왕 36년 4월 원효대사가 초창하였고 고려 광종왕 7년에 혜명대사가 중창하였는데 난리에 타버리고 석불만 남아있다. 그래서 100년전에 다시 권해룡이란 사람이 현재의 법당을 지었다. 현재 석조약사여래입상 보물 제536호로 지정되어 있다.

·용담사 : 미륵골에 있는 절. 1929년 권 영하의 어머니가 세웠는데 그 후 권영하도 이 절의 중이 되었음.

·미륵 : 미륵골이 있는 마을. 높이 3m 가량 되는 바위에 약합을 받쳐든 미륵불을 새기었음. (보물 536호)

7) 전 설

十 산제에 관한 전설 (다라미 마을)

산제를 지내는 날 4명의 사람이 산제당에 올라가는데 짐꾼중 한사람이 집에 있는 자식생각에 사탕 하나를 몰래 숨겼다. 그때까지만해도 아무일이 없었는데 제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사탕을 훔친 사람이 쓰러져 정신을 차리하고 거의 죽게 되자 영문을 모르는 나머지 제사 주관인들은 무슨 부정한 일이 있을 것이라 하여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내려와 짐꾼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모든 것을 털어놓고 다시 사탕을 올려 제사지냈더니 아무일도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

十 도둑골에 대한 전설 (복구미, 홰쟁이마을)

도둑골은 깊고 긴 골로서 양쪽에는 큰 절벽과 바위가 나무가 울창해서 낮에도 컴컴하며 사람들이 들어가기 꺼려한다. 그런데 도둑골은 한참 올라가면 중턱쯤에 평평한 곳이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도둑들이 소를 훔쳐다 잡아 먹거나 팔기도 하며 또한 도둑들이 모여 도둑질을 계획하던 곳이었다. 그리고 옛날 흉년이 들면 도둑들이 이곳에서 쌀이며 옷이며 훔쳐다가 숨겨두고 살았으며, 근동의 소는 전부 도둑맞았어도 소의 거처를 찾지 못할 정도로 숨어 생활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6.25동란 때에도 마을사람들이 인민군을 피해 이곳에 소를 끌고 와서 숨어 산 피난처이기도 했다.

十 석조약사여래입상의 전설 (다라미 마을)

옛날 어떤 사람이 명당을 찾아 묘를 쓰고자 다니다 미륵이 세워진 장소를 발견하고 그 장소에 묘를 쓰기위해 미륵을 없애고자하여 큰망치로 미륵을 두들겨 팼다. 그러자 하늘에서 번개와 천둥이 치고 불길한 징조를 보여 포기했으나 미륵을 파다보니 땅속에 일부가 더 파묻혀 있어서 처음에는 작은 미륵이라 생각했던 것이 막상 파고 보니 1장 6척이나 되는 큰 미륵이었다. 그때 망치로 부순 자국이 어깨에 흔적으로 남아 있으며, 현재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관계로 지금 이곳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지만 이절을 아는 사람들은 타지방에서도 찾아오곤 한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곳에서 기도를 드려 병고침받은 사람도 많았다 한다.

十 용담사 우물

천마산은 말이 엎드려 있는 형상이라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용담사와는 멀지 않은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위틈에서 물이 흘러나와 우물을 이룬 약수로서 옛날에는 이곳으로 소도 타고오고, 가마도 타고 와서 이 약수를 마시면 위장병과 다른병도 치료 되었다고하여 약수

라 불렸다고 한다. 이 약수샘 주위에 노인 한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은 의원은 아니었으나 침을 잘 놓았다고 한다. 아픈사람이 찾아오면 아픈곳을 미리알고 옷위에 침을 놓아 치료를 해주었는데 일명 신침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곳이 미륵골 근처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수가 없다.

十 곽일한 장군의 홍성전투에 관한 일화

의지가 강하며 누구보다도 기개가 곧은 이분은 위정척사의 기지를 발휘하여 안동 방면에서 신돌석 부대와 합세 많은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결심했다. 홍성 전투에서의 일화이다. 어느날 새벽 일본군에서 쫓겨 홍주성 꼭대기로뛰어 올라 몸을 피하셨는데 별안간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몸을 감추는데 안성마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곽한일 장군의 눈앞에 번쩍하는 것이 있어 무의식중에 그것을 잡아보니 그것은 일본군인의 일본도였다. 그리하여 그 일본도를 받아 아래를 향하여 던졌더니 안개가 걷히고 일본군이 물러간 뒤에 내려가보니 곽장군한테 칼을 던졌던 사람이 그 칼에 맞아 죽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느님까지도 그를 돌보았는가 보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다라미 마을은 몇 년전까지만 해도 산신제를 엄격히 지냈다. 산제를 지내기 전날부터 마을에는 누구도 출입할수 없었으며 또한 마을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산제는 매년 정월 열 나흘날에 지냈으며 마을 사람중에서 생기복덕한 집안을 골라 그 집 안사람들 중에서 또 생기복덕에 닿는 사람을 뽑아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4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축관, 제관, 짐꾼 두명이 올라가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기 전날부터 담배나 술을 절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망골이라는 계곡에서 목욕하고 그 계곡물로 밥을 해 올렸다. 4명이 제사지내는 동안 사람들은 시루떡을 장독대에 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제사지내는 쪽을 향해 기도하기도 했다. 제사를 지내며 마을사람들은 모두 소지를 올리는데 그럼으로 해서 1년이 편안하리라고 믿었다. 또한 매년 안씨집안이 제사를 지내는데 음력 10월 보름과 17일에 걸쳐 두 번 지내고 있다. 10월 보름에는 대종종들이 지내고 17일에는 소종종들이 지내는데 제물에 다시마를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하며 그 이유는 예전에 다시마를 먹고 열병으로 죽은 조상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행사로는 보름날 윷놀이와 칠석날 풍물놀이가 있다. 마을에서 하고 있는 계로는 연반계를 통합한 동네계가 있고 매년말에 결산한다.

복구미, 홰쟁이 마을의 전통놀이로는 현재는 이어져오고 있지는 않지만, 8월 보름 마다 줄다리기를 하였으나 해방후까지 이어져 오다 지금은 없어졌다. 그리고, 복구미 마을 앞으로 큰 거북바위가 있었는데 옛날 이곳에서 칠월칠석이면 제사를 지내고 풍악을 울리며 하루를 즐겼다고 하는데 이날만큼은 하루종일 기름냄새를 풍기는 것이 풍습이였다고 한다. 또한 성제골에서는 매년 음력 10월에 김씨 시제를 지내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있는 전통놀이는 음력정월에 하는 윷놀이와 칠월칠석에 하는 풍물놀이밖에 없다. 동네계로는 쌀계가 있으며, 청년회가 구성되어 애경사시 외지에 나간 사람들이라도 꼭 참석하도록하여 일을 돕고 있다.

월구리 마을에서는 산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으며 전에 다라미와 같은 마을이었을 때에도 산제사는 다라미 마을만 지냈다고 한다. 이 마을은 분구가 된지얼마 안되어, 특별한 유래는 다라미와 같을 뿐 별다른 놀이 및 행사는 없으며,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도 없다.

9) 특별히 소개할 만한 인물

十 곽한일 장군

유림의 거성 최익현의 문인으로서 27세때 을미정변을 당한 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곽한일 장군이시다. 그는 1869년 12월 25일 경기도 양주군 남면에서 태어나셨다. 이분의 본관은 청주 이름은 한일이며, 호는 장암이요, 자는 원우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우고 학덕이 매우 뛰어나며 최익현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쇄국 정신이 더욱 강했다. 기개가 곧고 의지가 강한 이분은 나라를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불사를 수도 있는 분이셨다. 이때의 정세는 우리 나라의 주권을 빼앗은 일본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몹시도 혼란스러우며 극악 무도한 일본 세력에 눌려 기세를 펴지 못하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시대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1906년 5월 홍산, 전남 지도에서 민종식과 합세하여 홍주성을 탈환하고자 많은 의병들과 말을 모으던 중 불행하게도 일본군에게

발각되어 민종식과 곽한일은 감옥에 가는 불운을 맞게 되었다. 갖은 각고 끝에 그분은 4년만에 옥에서 나오실 수가 있었다. 이때 고종 황제는 극비로 독립 의군부 총무총장을 전교하시며 의대소와 함께 칙서와 칼을 하사 하였다. 이에 재차 항전을 위하여 충남 아산군 태극 서원을 개설하고 안성땅에 약국을 설치하여 동지 모집과 군자금 마련에 주력을 기울였다. 한명의 젊은이가 약국에서 곽장군과 밀담을 나누고 있을 때 유심이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곽한일 장군은 약국을 경영하면서 모은 독립 자금을 이 젊은이에게 약봉지에 담아 주면서, " 이 약만 먹으면 꼭 나을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어서 가져다가 먹이십시오." 젊은이도 약을 받아서 "저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하며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약방을 나오는데 야수의 눈빛으로 지켜보던 일본 헌병이 "잠깐"하며 길을 막고 독립군의 몸을 수색하려하자 독립군은 일본 헌병을 후려치고는 재빨리 그곳을 피해 버렸다. 일이 이렇게 되자 곽한일 장군은 쓰러져 있는 일본 헌병을 치우고 난 뒤 얼른 약국문을 닫고 몸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일하던 중 많은 일본 헌병들이 몰려와 곽한일 장군은 그 자리에서 일본 헌병에게 체포당하고 말았다. 곽한일 장군이 감옥에서 어두운 날을 보내게 되었을 때 곽장군은 일본군이 주는 음식에 입을 대지 아니하였다. " 이 쌀알은 우리 백성의 살이요. 이 국은 우리 백성의 피인 것을 어찌 내 스스로 백성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겠는가?"하며 모든 것을 거절했다. 단식을 한지 일주일이 지나자 모진 고문과 굶주림에 지친 곽장군을 살려서 다른 독립군의 거처를 알아내기 위해 온갖 정성으로 보살핀 끝에 곽장군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으나 끝내 곽장군은 입을 열지 아니한 채 감옥속에서 갖은 고생 끝에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보지도 못하고 자유없고 어두운 생활에 지쳐버린 1936년 68세를 일기로 결국 파란만장한 막을 내렸다. 이분의 유해는 충청남도 송악면 평촌리 2구 뒷산에 후손들과 함께 자리잡고 있으며 그때 고종황제께서 하사하신 의소대와 칼은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다.

10) 종교단체

다라미 마을에는 종교단체가 없으며, 단지 오랜 옛날부터 전해오던 무속신앙을 믿는 전형적인 시골마을이다.

홰쟁이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있지만, 교회나 절은 없다.

월구리 마을에는 석조 약사여래 입상이 보존되어지고 있는 용담사가 있는데 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지만, 오랜 역사가 있으며 신도수는 30여명 밖에 안되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이곳 사람들보다는 외지에서 대부분 찾아오고 있다고 한다.

11) 공장현황

다리미 마을과 홰쟁이, 월구리 마을에는 공장이 전혀 없다.

12) 마을의 특성

다라미 마을은 마을 가옥 구조는 대부분 한옥으로 잘지어져 있으며, 대부분 농경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안씨들의 집성촌인만큼 단합이 잘되고, 넉넉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 편이다.

홰쟁이 마을의 특성으로는 송악저수지가 바로 옆에 위치하여 농업용수로 사용 가뭄의 피해가 적으며, 애경사시 서로 돕고 단합이 잘되는 마을이다.

월구리 마을은 특별하게 마을의 특성은 없으며, 마을이 매우 조용하고 한적하며,

주민들은 다른 마을처럼 순박하고, 어려운일은 서로 돕는 정이 남아 있으며, 얼마 전 마을 앞으로 가든과 낚시터가 생겨 종종 외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